1. 개　요

o 북한은 2001.1.1 오전 9시, 라디오 및 TV를 통해 2001년도 신년 [공동사설](당보·군보·청년보)을 발표(32분 소요)

- 제목 : [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]

o 발표형식면에서는 지난 6년간 되풀이 해 온 [공동사설] 방식을 답습

- 내용면에서는 "고난의 승리적 결속" 및 "경제강국 건설"을 강조함으로써 21세기를 맞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기대감 부여에 역점

2. 내용분석

< 2000년 회고 >

o 2000년은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

- 견인불발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 마지막 돌격전을 빛나게 장식

o 조국통일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 전개

- 평양상봉과 [6.15 북남공동성명]이 발표되어 조국 통일을

위한 역사적 과제들이 실현

o 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높이 떨친 긍지 높은 해

-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책동이 실패하고 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도달

o 요컨대 김정일위원장의 [선군영도]로 고난의 행군을 "승리적"으로 마무리하고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

< 2001년 과업 >

□ 2001년을 [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, 거창한 전변의 해]로 설정

o 실현 방도로 [자주정치], [단결의 정치], [애국애족의 정치]를 제시

-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강성대국 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

- 3가지 노선을 [21세기 김정일의 정치노선]으로 규정

※ "21세기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 검증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영광스러운 세기" 라고 언급함으로써 [21세기를 김정일 세기]로 공식화

□ 정치·군사분야

o [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]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자주정치, 단결의 정치, 애국애족의 정치 구현을 강조

- [자주]와 관련, "우리의 이념, 우리식의 정치체제, 우리식의 혁명방식 옹호고수"를 재삼 역설함으로써 현체제 고수의지 시현

- [단결]에 대해서는, '수령결사옹위'와 '혁명적 동지애'를 내세워 김정일에의 충성 강조

- [애국애족]과 관련, "후세에 찬양받는 노동당시대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"고 주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 무마 및 분발 촉구

o [선군정치]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군부중시 통치 방식 지속 표명

- [선군정치]를 "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"이라고 찬양

- [선군정치]는 "20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수호전에서 확증

된 혁명의 철리"라고 주장

o 내년도 [김일성 90회 생일]을 강조

- 금년도에 김일성 90회 생일(4.15), 김정일 환갑(2.16) 준비 등에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

□ 경제분야

o 현존 경제 토대의 정비를 중심과업으로 설정

- 생산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노후화된 공장·기업소의 기존설비 정비가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

※ '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, 모든 공장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하여야 한다'고 역설

o 새로운 환경, 새로운 분위기에 부응하는 '우리식 경제관리체계' 개선 촉구

- 새 세기는 진취적 사업기풍, 실리적·효율적인 경제조직 사업을 요구한다며 국제경제사회에의 동참, 남북관계 변화 등에 적극적 대처 시사

o 부문별 시책으로는 선행부문 최우선, 주민생활수준 향상

에 역점

- "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"을 비롯하여 석탄·금속·철도운수 등 선행부문 우선의 산업정책 불변을 견지

- 경공업, 농업 등 주민소비생활 부문에는 강도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기대감 고취에 노력

※ 대홍단정신으로 21세기 첫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자고 강조

□ 대외분야

o 미국, 일본에 대한 비난 없이 대외관계 활성화 의지 표명

- "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"이라고 천명

※ 대 미·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노정

□ 대남·통일분야

o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신년 [공동사설]에서 [6.15 남북공동선언]의 철저이행을 강조

- "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"

고 주장하면서 [조국통일 3대원칙](자주, 평화통일, 민족대단결)을 [남북공동선언]의 기초로 부각

o 대남비난은 없으나 '외세의존 및 공조 포기', '연방제 통일', '법률적·제도적 장애제거' 등을 간략하게 언급

- 외세의존 및 외세와의 공조를 탈피하여 [동족과의 공조] 강조

- '연방제 통일방안'을 내세우고 있으나 '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'이라고 주장

- '법률적·제도적 장애제거'를 거론하면서도 국보법 폐지 등 직접적 대남요구는 자제(※국보법 폐지는 간접적으로 주장)

※ [6.15 남북공동선언]을 의식, 유연한 방식으로 기존 통일노선 선전을 되풀이 할 가능성

o [주적] 개념 및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의도

3. 종합평가

o [고난의 행군 결속]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"새로운 진격"을 강조

- 새로운 정책비전 보다는 현실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면서

- 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

o 경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장·기업소 구조조정, 노후 시설 개체 등 실리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시대변화 적응을 강조

o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도 금년도 정책 방향은 원칙적 입장만 표명

- [대외부문]을 종전과 달리 [정치부문]에 이어 우선적으로 언급한 점이 특징

o 이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은

- 김정일위원장 중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문제에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한편,

- 대남 및 대외관계는 남한의 정치·경제적 상황 및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등을 관망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.